

‘함평 국향대전’ 대한민국 대표 가을꽃축제 ‘우뚝’

명품 국화분재 49점·신품종 첫 공개…예술성·품격 ↑

8일 참여형 경연 ‘국향끼스타’ 본선… 다채로운 무대

함평군의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예술성과 품격을 더하며 대한민국 대표 가을꽃 축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5일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엑스포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 축제장 내 나비생태관에 마련된 ‘명품분재 전시관’과 ‘국향대전 역사관’이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 전시는 국화 분재의 예술성과 국향대전의 역사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명품분재전시관에는 함평군을 대표하는 국화분재 49점이 전시돼 있으며 각기 다른 수형의 분재들은 한 송이 한 송이 정성을 들여 빚은 예술작품처럼 국화 특유의 섬세한 생명력과 자연미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특히 각 분재 옆에는 작품을 제작하며 느낀 사색과 감정을 ‘시(詩)’로 풀어내어 작품을 감상하는 이들에게 여운과 감성을 더한다.

전시관에는 ‘나비노을’, ‘나비연옥황’, ‘국향풍월조’, ‘국향지우’, ‘천지석양’ 등

군에서 자체 개발한 신품종 국화도 처음으로 공개됐다.

분재전시관 내부에 마련된 국향대전 역사관에는 제1회부터 제21회까지의 국향대전 주요 장면을 담은 사진과 화보집이 전시돼, 축제의 발자취와 변화의 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주무대에서 특별 경연대회 ‘국향 끼스타를 찾아라’ 본선이 오는 8일 개최된다.

국향 끼스타를 찾아라는 군이 국향대전에서 올해 처음 선보이는 참여형 경연 프로그램으로, 전국의 숨은 예술인을 발굴해 공연 기회를 제공해 축제의 흥을 더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문화산업 발전에도 노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연에는 나이·성별·국적·장르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밴드·댄스·마술·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장르의 참가자들이 열정과 끼를 뽐낸다.

말도말하지와 공감 등 사전 심사를 통과한 12개 팀이 지난 1일 열린 예선 무대에서 밴드 공연과 댄스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이며 관람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



함평군의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예술성과 품격을 더하며 대한민국 대표 가을꽃 축제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사진은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 주무대에서 열린 특별 경연대회 ‘국향 끼스타를 찾아라’ 예선 모습.

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펼쳐질 본선 무대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본선은 전문 심사위원단 평가와 현장 관람객의 호응도를 함께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술인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대상 수상팀에는 상금 500만원,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150만원, 장려상 2팀 200만원, 예선통과 7팀에게는 참가상 210만원 등 총 1260만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상의 군수는 “‘국향 끼스타를 찾아라’는 관객이 함께 만드는 참여형 콘텐츠”라며 “전국의 재능 있는 아티스트들이 함평에서 꿈을 펼치며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하는 무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했다. 한편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마법의 국향랜드’를 주제로 오는 9일까지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나주, 핵심 현안사업 등 내년 국비 확보 ‘총력전’

윤병태 시장, 국회 찾아 에너지전문과학관 사업 등 요청

“나주는 에너지산업 심장”…정부·국회 상대 지속 전개

나주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국회를 찾아 지역 핵심 현안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전에 들어갔다.

5일 나주시에 따르면 윤병태 나주시장과 시장 관계자들은 최근 국회를 찾아 주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건의 활동을 펼쳤다.

윤병태 시장은 신정호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계원 예결위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장 등을 만나 나주시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윤 시장은 특히 ‘국립 나주 에너지전 문화관 건립’과 같은 미래 성장 기반 사업을 비롯해 ‘영산강정원 진입도로

개선 사업’,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 두차례 침수 피해를 본 문평면 산호지구 배수개선 사업 등 시민 안전과 환경 개선에 직결되는 사업까지 안정적인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또 ‘핵융합 실증로용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을 국가 핵심 전략과제로 제시하며 차세대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전폭적 지원을 강조했다.

윤 시장은 “초전도 도체는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에너지 개발의 8대 핵심기술 중 하나”며 “이 사업이 추진되면 나주는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미래형 청정에너지 기술의 중심지이자 글로벌 핵융합 산업 생태계의 테스트베드로 도약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주는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심장으



윤병태 나주시장은 최근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신정호 의원을 만나 지역 핵심 현안사업 지원을 요청했다. 사진 왼쪽부터 윤병태 나주시장,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정호 행정안전위원장.

로 국가 탄소중립 실현의 전조기이자 균형발전의 상징 도시”며 “국가 정책의 큰 방향과 나주의 비전이 맞닿아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인 예산 지원으로 힘을 보태달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국회 방문을 시작으로 연말에 예산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정부 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국비 확보 활동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다.

나주=조환천 기자 pose007@

담양, ‘고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선정

사업비 372억원 확보…주민 안전 강화·생활여건 개선

담양 고서면이 환경부가 주관한 ‘2025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공모에 최종 선정, 침수예방을 위한 사업비 372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선정은 매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반복된 고서면 소재지와 교산리 교촌마을 일원에 하수관거 정비·우수 배제 능력 강화를 추진한 군의 지속적인 행정 노력과 체계적 대응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담양군은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위해 2024년부터 침수이력조사를 실시하고, 올해 8월에는 하수도정비대책 협의를 완료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에 나섰다. 관계 기관 협의, 주민의견 수렴, 현장 실태조사 등 사전 준비도 철저히 진행했다.

특히 침수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문제 구간별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높은 계획’을 추진했다.

앞으로 고서면 소재지와 교촌마을 일원에 총 372억원이 투입된다. 해당 지역에는 우수관로 2.99km 신설과 노후관로 개

량, 빗물펌프장 2개소 설치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집중호우 시 저지대 빗물을 신속히 하천으로 방류할 수 있어, 상습 침수지역 주민의 생명·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교촌마을의 침수 해소와 함께 고서중학교 일원 정비가 완료되면 학생 등교 안전이 확보되고, 주변 도로와 상가 불편도 크게 줄어 생활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군은 앞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전라남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설계영역 착수, 실시설계 승인, 공사 착공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정철원 군수는 “이번 선정은 침수 예방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행정적 노력과 기술적 준비의 결실이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조성용 기자 jnnews@

화순군-중국 우계현, 우호교류 협약 체결

문화·산업·관광 등 다방면 협력 약속

국제교류 기반 확대·상생 발전 모색

화순군과 화순군의회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중국 푸젠성 삼명시 우계현을 방문해 국제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방문은 양 도시 간 교류 기반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화순군 대표단은 구북구 군수와 오형열 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사회단체 관계자 등 21명으로 구성됐다.

대표단은 3일 우계현 정부 청사를 방문해 구열현 현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열고, 문화·예술·교육·농업·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와 공동 발전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후 대표단은 우계현 경제개발구 성남원·성서원을 방문해 푸젠 신산업심화과학기술유한공사, 우계경제국가중공업유한공사 등 주요 산업현장을 시찰했다. 또 역사



화순군과 화순군의회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중국 푸젠성 삼명시 우계현을 방문해 국제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문화명촌인 계봉촌을 방문해 지역의 전통 문화와 관광자원을 살펴보고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우계현 경제개발구 내 주요 산업시설을 시찰하고, 역사문화명촌인 계봉촌을 찾아 전통문화와 관광자원을 둘러보며 협력 방

안을 논의했다.

또 4일에는 ‘주자 탄신 895주년 기념 제전 행사’에 공식 초청돼 구북구 군수가 현화하며 양 지역의 문화적 연대를 다졌다.

구북구 군수는 “우호교류 체결을 위해

대표단을 따뜻하게 환대한 구열현 우계현장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도시가 문화·경제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영광, 칠산해역 참꼬막 137만 마리 방류

수산자원 회복·어업인 소득증대 기여

영광군은 최근 염산면 칠산해역 일원에 어민 참꼬막 종자 137만마리를 방류했다. 이번 방류는 해양생태활성화 사업비 2억원이 투입돼 염산면 설도항과 향화도항 등 2개항에서 실시됐으며, 영광군 관계자와 지역 어업인이 함께 참여했다.

참꼬막 종자는 강진군의 종자생산업체에서 생산된 2cm 이상 우량 종자를 매일 한 것이다.

이번 사업은 영광해역의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해양생태활성화 사업’의 일환이다.

군은 지역 어촌계와 협력, 매년 지역 특성에 적합한 어패·갑각류 등을 지속적으로 방류해 수산자원 조성과 어업인의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다.

어촌계 회원들은 “최근 참꼬막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어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 방류가 생산량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수산종자 방류를 건의했다. 군 관계자는 “해양환경 변화와 남획 등으로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번 참꼬막 방류가 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98@gwangnam.co.kr